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법원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Supreme Court of Korea **2017. 06.**

법원 사람들

BIG DATA



INFORMATION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그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이 분주합니다.
사법부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도화된 사법시스템 구현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한 단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Contents

2017 June vol. 386



Cover Story

이번호 표지 주인공들은
대한민국 사법정보화를
책임지고 있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직원들입니다.

발행일 2017년 6월 1일
통권 386호
발행인 법원행정처 차장 김창보
편집인 공보관 조병구
편집총괄 홍보심의관 이종표
편집기획팀 박가영, 우준서, 신영분
발행처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전화 02)3480-1456 팩스 02)533-5484

법원사람들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List.work?gubun=7>
이메일 법원사람들@scourt.go.kr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scourtorea>
트위터 <http://twitter.com/scourtorea>
블로그 http://blog.naver.com/law_zzang,
http://blog.daum.net/law_zzang
유튜브 <http://www.youtube.com/scourtorea>
인스타그램 <http://www.instagram.com/sourthkorea/>
기획·디자인·인쇄 (주)성우에드컴 전화 02)890-0900

소통으로

With Local

-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 04 **프롤로그**
 - 06 **법원 특! 특!**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은 어떤 곳인가요?
 - 10 **welcome to IT Center**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방문을 환영합니다!
 - 12 **포토 카툰**
하나하나의 CSR, 최선을!!!
 - 14 **프로젝트 경험기**
올고 웃었던 1년간의 프로젝트 경험기 공개!
 - 15 **TIP**
뉴스와 신문에 자주 나오는 IT Hot 용어 Top3!

공감으로

With Court

- 16 **핫 이슈**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과제는?
- 18 **나의 일 나의 삶 I**
아이 한 명이 자라는 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 22 **나의 일 나의 삶 II**
女관사유감
- 26 **테마가 있는 글**
부드러운 글쓰기
- 30 **조사심의관 코너**
책을 만드는 일
- 34 **zoom**
법원가족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심 없이 달리겠습니다!
- 복지후생담당관실
- 36 **현장 속으로**
어린이의 시선으로 법과 법원을 바라보다
- 법원전시관 어린이기자단 발대식
- 39 **법원으로의 초대**
양원주부학교 학생들 대법원 견학



BIG DATA



행복으로

With People

- 40 **스타일링 Q**
“내 인생의 골든 룰을 찾아서”
- 박충현 의정부지방법원 행정관
 - 44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문학이라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 광고인 박용현
 - 48 **Health**
소리 없는 살인마, 미세먼지 ‘심각’
 - 50 **트렌드 따라잡기**
채우기보다는 비움으로, 미니멀 라이프
 - 52 **COURT NEWS**
 - 54 **독자 마당**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글 · 사진_편집부

대한민국 사법정보화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 있는 곳.
사법부의 눈부신 미래도
이곳에서 잉태되어 무럭무럭 자랍니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은 어떤 곳인가요?



권오은 실무관

김주리 실무관

송충근 과장

윤아린 실무관

이호수 실무관

‘대한민국 사법정보화 세계 1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법부 전산정보의 요람이자 메카인 이곳에 지난 4월 새내기 전산 실무관들이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전산정보관리국이 어떤 곳이고, 무엇을 하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들의 궁금증을 선배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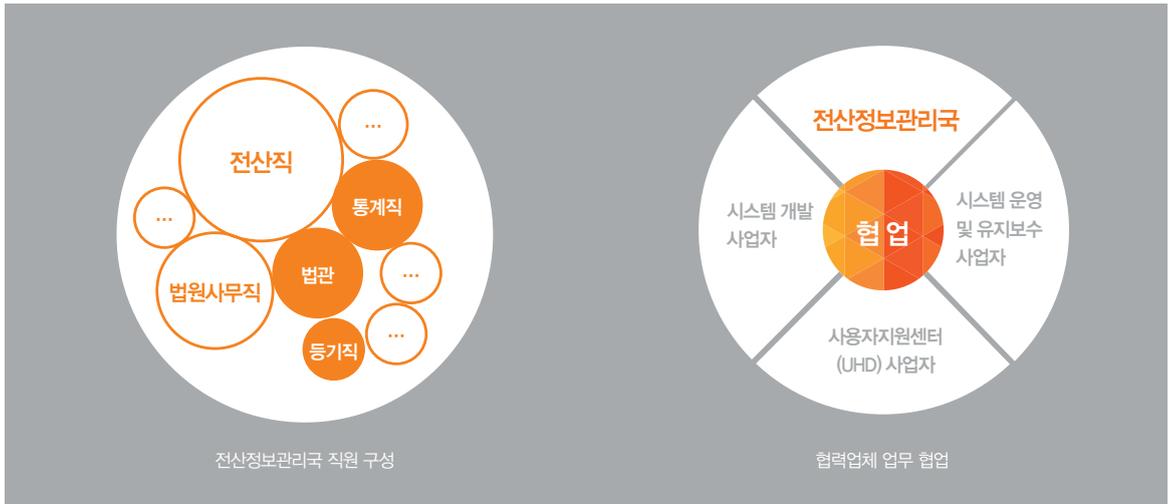
Q1. 전산정보관리국은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가요?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Q2. 전산정보관리국은 어떤 조직인가요? 서울 서초동에도

있고, 분당의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전산정보관리국은 법원행정처 여러 실국의 하나로 정보화심의관실, 관리운영과, 정보화지원과, 정보화운영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관과 일반직 공무원 132명이 서초동 대법원 청사와 분당에 위치한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Q3. 전산정보관리국의 히스토리를 짧게 알려주세요.

전산정보관리국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3년 사법행정의 전산화 추진을 위해 기획조정실 내 행정관리담당관실로 출발해 1988년에 전산담당관실로 하

나의 '과'가 되었습니다. 그후 2000년 기획조정실 내 정보화담당관실로 변경되었다가 2006년에는 정보화심의관실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2009년에 전산정보관리국이라는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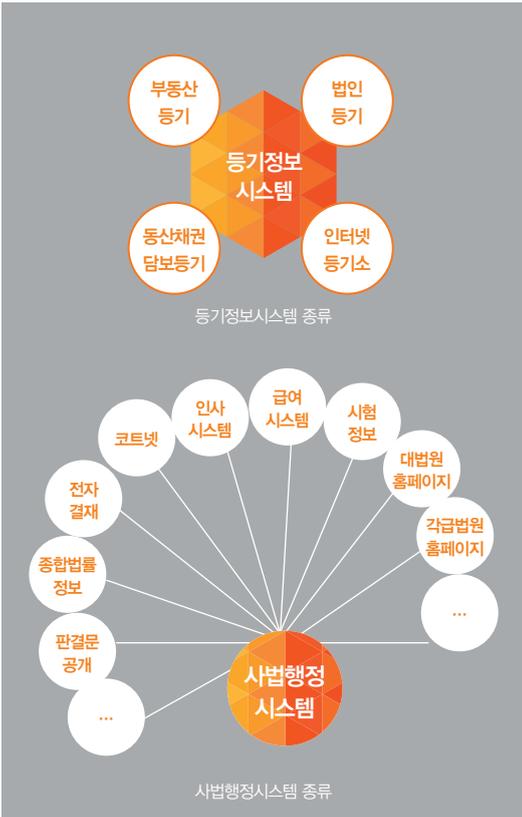


전산정보관리국은 법원의 사법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 활동을 하며,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산정보관리국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9년에 전산정보관리국이라는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Q4. 전산정보관리국에는 어떤 분들이 근무하시나요?
 전산직렬 공무원만 있는 것은 아닌지요?**

법원의 거의 모든 업무에 대하여 사법정보화가 이루어져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 업무 지원을 위하여 법관을 비롯한 전산, 통계, 법원사무, 등기, 행정 등 다양한 직렬이 모여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 기존 시스템의 운영, 개선을 위해 다수의 각 IT 분야 전문 업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Q5. 전산정보관리국에서 하는 업무가 다양하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가장 주요 업무인 재판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신청 등의 재판사무시스템, 법관통합재판지원, 판결문작성관리, 전자법정, 그리고 인사·급여시스템,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홈페이지와 각급 법원 홈페이지, 사법통계분석시스템(DW), 등기정보시스템,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고, 데이터센터와 사이버안전센터를 두어 위 각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Q6. IT 분야는 프로그램뿐 아니라 서버 등 많은 인프라 장비 등도 필요한데 이러한 것도 모두 관리를 하는지요?

전산정보관리국의 데이터센터에서 전국 법원과 등기소에서 사용하는 서버, 디스크,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365일 24시간 관리와 통합 관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7. 요즘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사이버 보안이 중요시되는데, 우리 법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요?

전산정보관리국 내에 사이버안전센터를 두어 전산직 공무원이 전문 보안업체 인력과 함께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 등 외부 공격으로부터 사법부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365일 24시간 실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Q8. 지금 4차 산업혁명 등 이슈가 많은데, 사법정보화와 관련해 앞으로 전산정보관리국의 계획과 비전이 궁금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4차 산업혁명 등 이슈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국민서비스와 법원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최신기술 적용 등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의 사이버 소송 도우미, 각종 법률정보 지능형 통합검색, 재판서에 대한 지능



형 서비스 등, 예산, 기술 성숙도, 사법정책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지능형 서비스들이 사법부 내외부의 업무처리 효율성 증대와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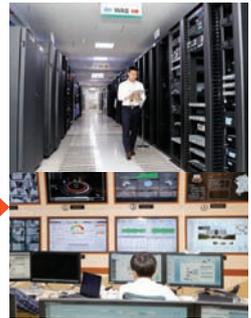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방문을 환영합니다!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는 2008년 개칭한 이래 세계적인 벤치마킹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선진화된 우리 사법정보시스템을 배우고, 전산정보센터 청사 구조와 운영 프로세스를 참고하기 위해 2016년 한 해에만 28개국 420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5층에는 각 과의 사무실과 사이버안전센터, 대회의실, 화상회의실 등이 있습니다.

2층과 4층에는 사법, 등기, 가족관계 등 대부분의 개발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최적의 개발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3층에는 데이터센터가 있으며, 각종 서버, 네트워크 장비, 관제실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1층에는 로비, 출입통제실, 전자소송 체험관실 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Interview



정재현 전산정보관리국장



QR코드를 스캔하면
유튜브에서 최재
동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뢰받는 사법정보화 서비스를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전산정보관리국은 사법정보화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곳입니다. 정보화 정책 입안, 재원 조달을 위한 예산 확보, 시스템 구축과 관리를 위해 법원 직원 130여 명과 외주 직원 800여 명이 함께 어울려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IT 기반을 벗어나서는 생활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께가 엄청난 방대한 기록을 일일이 수레에 실어 날라야 했던 시대를 지나, 지금은 마우스 클릭으로 수많은 재판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을 위한 재판 업무도 편리해지고 효율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이처럼 사법정보화는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면서 재판제도를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법정보화는 시스템 개발보다는 운영의 묘가 더 중요합니다. 시스템은 구축 후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과 개선할 점들이 발견됩니다. 전산정보관리국은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언제나 귀 기울이고 즉각 개선,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법원 가족들의 눈높이에 맞춘 편리한 사법정보화 시스템 구현이야말로

사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알아주는 IT 강국입니다. 일례로 얼마 전 미국 워싱턴지방법원을 방문했는데, 전자법정을 보여주며 그들의 정보화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수년 전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IT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 중국 등 세계는 대한민국의 사법정보화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산정보관리국을 찾고 있습니다. 2016년만 해도 세계 28개국 42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고라고 해서 절대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IT 분야는 짧은 시간에도 엄청난 변화를 거듭하고 있어 지속적인 개발과 혁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발 빠른 움직임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산정보관리국은 이에 발맞춰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차세대 사법시스템 구축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정보화 서비스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니 기대해주시요.

일하면서 느낀 점, 감사한 부분, 뿌듯했던 것

MINI Interview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사람들의 한마디



강한수 전산서기관

저희 부서는 매주 목요일 일과시간 후 직원들이 모여 시스템 개선 사항을 반영, 확인합니다. 때로는 새벽까지 진행하기도 하고, 큰 과업일 경우 주말 작업도 모두 감수하지요. 열심히 만들거나 개선한 시스템이 실무에 적용돼 사용자들이 더 편했더라는 반응을 보일 때면 그러한 기쁨이 없습니다.



한중하 통계실무관

통계팀에서 일하면서 전자화된 다양한 사법자료를 저장하면 프로그램을 이용해 그 데이터를 추출, 가공, 병행함으로써 사건의 흐름을 숫자로 보여준다는 사실에 매우 높은 긍지를 느낍니다. 부족한 저지만 멋진 선배님들의 가르침을 받아 열심히 사법통계를 이끌어가겠습니다.



박정민 전산실무관

컴퓨터공학 전공자로서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 사법정보화 관련 개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정보화 부문은 법 적용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 처음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부단한 노력 끝에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가 스스로 발전했다는 생각이 들 때면 개인적인 역량 강화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 보람이 큼니다.



장연정 전산행정관

저는 지난 두 달 반 동안 서울화생법원 개원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파산부 사건을 모두 서울화생법원으로 데이터 전환하는 것이 큰 과제였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했어요. 서울중앙지법의 개인회생과, 파산과 직원의 업무협조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고, 우리 화생파산팀원에게도 감사사를 전합니다.



안원주 사무관

법원에 들어온 지 3년 차로, 작년 정보화실관실에게 와서 1년 정도 사법정보화 예산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부의 독립성을 반영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사법부의 대표라는 마음가짐으로 사명감을 갖고 일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하고 보람이 큼니다.



임지현 행정관

우리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재판사무시스템에 반영하는 데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보람이었습니다. 또한 출장을 다니면서 전국 법원의 선배님, 후배님들과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전자소송에 대해서 강의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개인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하나의 CSR, 최선을!!!

전산정보관리국



CSR(Customer Service Request) :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프로그램을 수정, 개발하는 것을 일컫음.



울고 웃었던 1년간의 프로젝트 첫 경험기 공개!

- 2016년 재판사무시스템 고도화 사업 -

그들에게 1년이란 시간은 길고도 혹독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2016년 출발한

'2016년 재판사무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1년이라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사업기획부터 구현, 안정화까지 실무관이 선배인 사무관과 계장들을 따라다니며 했었던 1년간 피땀 흘린 경험기를 공개합니다.

PROJECT 365

개발 과업

- 기록뷰어 개선 • 독촉사건 전면전자화 기능 개발
- 송달확정증명 등의 인터넷 신청, 발급 기능 개발
- 전자소송 홈페이지 통합검색기능 개선
- 국고대납 환급절차 개선

사업발주진행, 평가회의, 기술협상... 혁혁

사업기획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발주/
계약

사무관님, 계장님을 도와
나는 자료 정리를 열심히!!!

분석단계
설계단계

헉.. 기존 설계한 것 변경,
다시 개발... 기간 내에
끝낼 수 있을까?

선배님 따라다니며
매일 회의, 법원 방문.
내용도 어렵다. ㅜㅜ

구현 단계

테스트
단계

이제 시나리오에 따라
꼼꼼히 전체 테스트!!!
오류를 잡자!!!

이제 사업 종료하고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 시작!!!

두근두근... 오픈이 잘 될까..
오류가 없을까... 모두 긴장..
오류는 긴급 수정!!!

오픈 안정화

운영



뉴스와 신문에 자주 나오는 IT HOT 용어 TOP3!

TIP

AI 인공지능



AI(인공지능)는 인간의 생각과 유사하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컴퓨터의 지능을 말합니다. 작년 3월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결로 큰 화제가 되었지요.

빅데이터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기술이기도 한 AI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상황에 맞게 실행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사회 전체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민원인을 위한 AI 소송도우미, 각종 법률정보에 대한 지능형 검색 서비스, 기존 유사 사건과 사례를 찾아 법관에게 제공하여 업무에 도움을 주는 AI 서비스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BIG DATA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요즘 같은 정보화시대에 숫자, 문자, 영상 등 많은 양의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뜻합니다.

이러한 대용량의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고 빠르게 분석하는 등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가치 있는 분석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날씨 예측, 도로 상황예측, 범죄예측 프로그램 등의 예를 들 수 있겠지요.

법원도 민원인과의 여러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으며, 사건의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재판과정과 판결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업무처리 과정 중에 놓치거나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예측하여 알려주는 서비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VR? AR?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은, 현실이 아닌 3차원의 가상공간을 구현해내는 기술로, 전용 특수 헤드셋을 쓰고 우주공간이나 멀리 아마존의 밀림 등에서의 입체감 있는 영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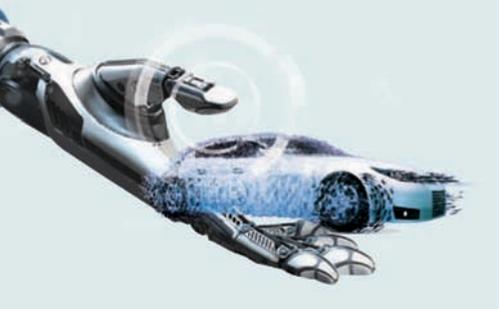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은, 최근에 유행했던 포켓몬 GO게임처럼 실제 보이는 공간에 3차원의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로, 괴물이나 만화 속의 인물들이 눈앞에서 보이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하여 공간을 초월한 가상공간의 법정을 만들거나, 거대한 증거자료를 실제 법정에 갖다 놓는 것처럼 3D 영상으로 보여주는 등 활용할 수도 있겠지요?

이번 호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기획을 담당할 실무진들을
소개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과제?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지난 5월 24일 심포지엄 개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파장은 대한민국 사법부에도 예외는 아니다. 대법원은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다각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 일례로, 2016년 10월에는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응전: 사법의 미래’라는 주제로 국제법률심포지엄을,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과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학문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담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글_편집부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은 5월 24일(수) 서울대 공익산업 법센터,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와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미 현실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이 던지는 화두에 관하여 사법부가 진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최한 심포지엄이었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 핀테크, 의료-바이오 산업계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4차 산업혁명의 비전과 진행 상황 및 현장의 애로사항에 관하여 생생한 의견을 듣고 다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등 법관들과 변호사, 로스쿨 교수 등 법조계 인사들뿐만 아니라 권오곤 한국법학원장, 이찬희 서울지방법원 호사회 회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이영두 법률신문사 사장, 영화배우 정보석과 KBS ‘명견만리’ 제작팀 등 500명이 넘는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권문식 현대자동차 부회장, 김상현 네이버 전 대표이사, 이언 가천의대 길병원 부원장(인공지능암센터장)이

기조강연자로, 정희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은 기조강연 및 제1세션(자율주행차)에 참석해 산업현장 전문가로서 경험과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사법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2016년 10월 18일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응전: 사법의 미래’라는 주제로 국제법률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다보스포럼에서 최초로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한 클라우스 슈바프(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 회장을 초대해 기조강연을 했다”며 “이번 심포지엄은 국제법률심포지엄의 성과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이미 현실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에 사법부가 진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획한 것”이라며 그 취지를 밝혔다. 그는 또 “특히 기존의 다른 4차 산업혁명 관련 법률 심포지엄들이 학문적 논의에 중점을 둔 것에 비해 본 심포지엄은 실제 산업현장의 최전선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로부터 4차 산업혁명의 비전과 진행 상황 및 현장의 애로사항에 관하여 생생한 의견을 듣고 다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c

기조연설 주요 내용

권문식

현대자동차 부회장
(자율주행차)



권문식 부회장은 ‘Future Mobility Vision’을 주제로 자동차산업의 변화와 미래의 자동차에 관하여 기조강연을 하였다. 특히 커넥티드 카 (connected car), 지능형 고(高)안전차, 자율주행 기술, 수소전기차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인간 중심의 기술 변화’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김상현

네이버 전 대표이사
(핀테크 등)



김상현 전 대표는 네이버가 현재 인공지능을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분야와 그 기술 수준을 소개하고 인공지능 도입의 필연성을 설명하면서 아울러 정부, 국회 및 사법부가 인공지능 도입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언

가천의대 길병원 부원장
(의료-바이오)



이언 부원장은 IBM의 인공지능 왓슨(Watson)을 의료 현장에 도입하여 이룩한 성과를 발표하고, 인공지능에 의한 의료 행위의 장점 및 발전 방향과 함께 이로써 발생할 구체적인 윤리적·법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아이 한 명이 자라는 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글_김지승 부산가정법원 총무과장



사는 게 인연 따라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 아이들과 만나 웃고 떠드는 것도, 내가 가진 인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는 모두 내가 가진 인연 따라 정해지겠지만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자는 다짐을 해본다. 이런 사람들과 이런 시간들이 모여 세월이 지나면 추억이 되고 그리운 사람들이 되겠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밖부터 봤다. 4월 15일 오늘은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하는 보호소년들의 팀인 레인보우 카운트와 부산법원 야구동호회인 테미스 선수들의 야구시합이 있는 날이다.

청소년회복센터는 비교적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소년 중 가정이 해체되거나 부모의 보호력이 미약한 소년들을 법원의 재판을 통해 위탁받아 부모 대신에 보호하고 양육하는 사법형 그룹홈으로 대안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 각 센터에서는 10명가량의 아이들이 센터장의 보살핌 속에서 단체생활을 하고 있다. 센터장은 아이들의 부모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이 비행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형태의 청소년회복센터는 현재 부산과 창원에 각 6개, 울산에 3개, 대전에 4개로 전국에서 총 19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 센터를 거친 아이들은 재범률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어 센터의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부산에 있는 6개 센터 중 2개는 여자아이들이, 4개는 남자아이들이 생활하는 대안가정이다. 오늘 야구시합에는 남자아이들만 참가하기로 했다. 여자아이들이 있으면 지나친 승부욕과 자기과시로 분위기가 과열되어 선수들이 부상할 우려가 있어 내린 결정이다. 선수로 뛰지 않는 아이들은 응원단으로 참가했다.

경기 전날까지도 시합 당일 오전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기에 비가 안 왔으면, 오히려라도 오전에는 안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새벽에 왔는지 땅은 젖어 있고 비는 그쳤다. 다행이다. 시합장소인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도예촌 야구장으로 출발했다.

야구장에 도착하니 레인보우희망재단 이사장인 박정태 前 롯데 2군 감독, 레인보우희망재단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이 벌써 도착해 야외 천막을 치고 있고, 양동현 두드림 청소년회복센터장은 레인보우 카운트 팀 선수복을 입고 아이들과 함께 몸을 풀고 있었다.

오늘 시합을 위해 지난 가을 제1회 야구 대회 후 박정태 감독의 지도로 매주 토요일 이곳에 모여 꾸준히 연습했다고 한다.





박정태 감독의 말에 따르면 이 아이들은 집중력이 좋아 하나에 몰두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한다고 한다. 야구에 빠진 아이들에게 야구를 못 하게 하는 것은 큰 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센터에 있는 동안 다시 나쁜 짓을 하면 야구를 못 하게 하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야구를 하고 싶어서 행동을 조심한다고 한다.

한 아이는 야구 연습을 하다가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고 있었다. 6월 초에 일본에서 친선경기가 열릴 예정인데 이 아이의 회복상태를 지켜보고 동행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박정태 감독은 이 아이가 야구에 열정이 있는 아이라 꼭 데려가고 싶은 모양이었다.

경기 시작 전에 부산가정법원에서 준비한 야구 글러브와 테미스에서 준비한 야구 배트, 야구공을 전달했다. 야구 글러브에는 부산가정법원, 레인보우 카운트 문구를 새겨넣어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물품이 아니라 레인보우야구단에 부산가정법원이 기증하여 레인보우 카운트팀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레인보우 카운트팀 투수가 던진 볼을 정확하게 맞힌 법원장의 시타와 합성, 박수 소리로 야구 시합이 시작되었다.

야구 시합에서는 한쪽이 다른 쪽을 봐주지 않았다. 테미스 선수들이 심하게 잘했다. 보호소년들이 외야로 친 큰 타구를 봐주지 않고 잡아냈다. 관중석에서는 이에 야유가 쏟아졌다. 테미스 선수들의 몸과 마음이 따로 놓고 있는 것 같았다. 마음은 소년들의 기를 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몸은 공이 오는 족족 따라가 잡아내는 것이다. 점점 소년들의 표정에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5회가 끝나면서 스코어는 10:9로 레인보우 카운트팀이 이기고 있었다. 6회 초반 잘 막으면 소년들의 승리로 끝날 상황. 그런데 6회 초 테미스가 2점을 득점해 순식간에 역전이 벌어졌고, 6회 말 승부욕으로 뽀뽀 뭉친 소년들이 최선을 다해 1점을 득점해 경기는 11:11 무승부로 끝이 났다.

약간 실망한 아이들도 있었지만, 이기지는 못했어도 지지 않았기에 마음은 한결 가벼운 표정이다.

경기를 마치고 경기장 부근에 있는 짜장면집으로 이동했다. 식사 전 테미스 야구단 단장인 이혁 부장판사가 “아이들 실력이 지난해와 비교할 바가 아니다. 특히 수비 움직임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6월 초에 일본에 가서 좋은 경기 치르고 오라”라는 경기평으로 보호소년들을 격려했다.

다음으로 박정태 감독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바라봐줘서 감사하다”라는 인사말을 했다.

탕수육이 들어오자 배가 많이 고팠는지 금세 바닥을 드러냈다. 너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와서인지 식당 서빙이 아이들의 먹는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다. 추가로 탕수육이 식탁마다 조금씩 제공되고 쟁반짜장이 나왔는데 이 역시 곧 바닥을 보였다. 끝으로 법원장의 “행복하세요. 미래가 아닌 지금 현재”라는 말과 함께 모든 행사가 무사히 끝났다.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한 명이 자라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아이가 자라는데 건강한 이웃이 있으면 그 안에서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다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서 평범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본다. ©

女판사유감

글_장민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판사, 직업만족도 1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16년 6월부터 10월까지 국내 621개 직업에 종사하는 1만9,127명의 재직자들을 상대로 현재 몸담고 있는 직업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조사했는데 직업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온 직업은 ‘판사’였다고 합니다. 이 조사에서 판사는 사회적 평판(해당 직업이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타인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자녀에게 자신의 직업을 권유하고 싶은 정도) 2위, 직업지속성(하는 일이 나이가 들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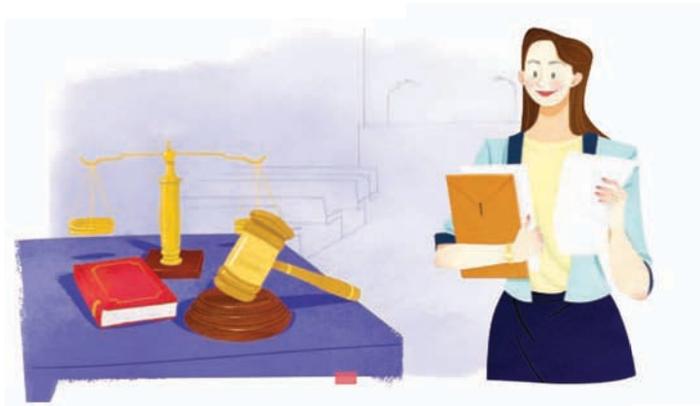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8위, 급여만족도(해당 직업에서 받는 급여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 4위, 수행직무만족도(현재 하는 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4위 등 모든 항목에서 골고루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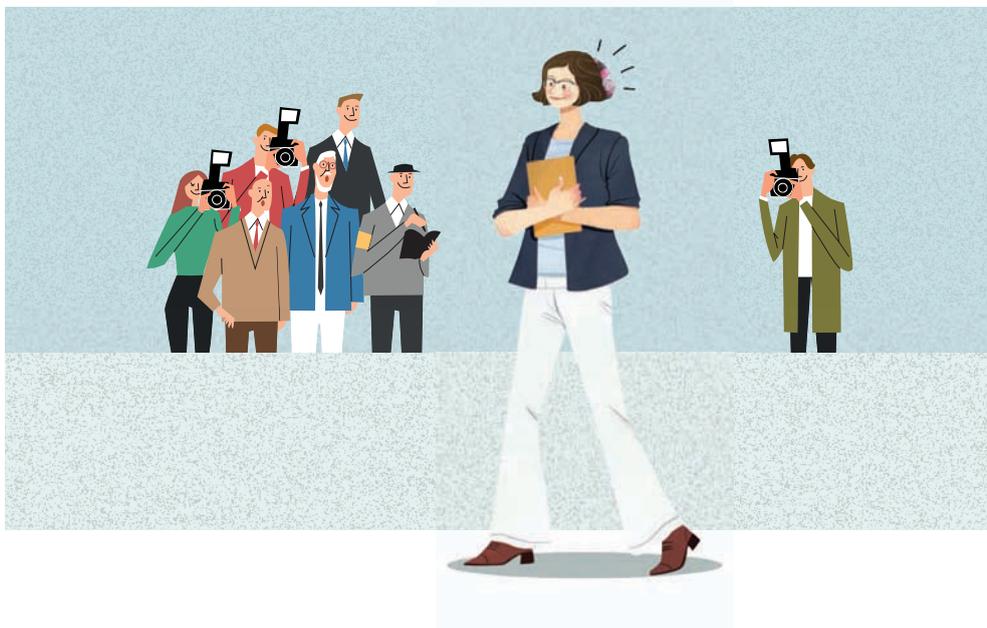
그렇습니다. 저 역시 판사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보람이 크다는 점에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직업만족도 1위’라는 타이틀에는 선뜻 공감하지 못했는데요. 물론 과중한 업무량과 어려운 사건들도 큰 이유였습니다만, ‘여자’ 판사로서 느낀 고정관념과 편견들 때문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1. 아, 판사님이셨어요?

저는 4년 차 배석판사이자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수명법관으로 지정되어 조정기일에 혼자 들어갈 때면 심심치 않게 겪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법복을 입지 않고서 조정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먼저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당사자와 변호인들이 저를 힐끔 쳐다봤다가 다시 고개를 돌리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판사석에 앉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 그제야 당사자와 변호인들이 대화를 멈추고 “아, 판사님이셨어요?”라고 하면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자세를 고쳐 앉지요. 아무래도 ‘어린 여자’는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판사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이런 이야기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새파랗게 젊은 것이 판사라고 법대에 앉아서는…”으로 시작되는 불만 섞인 이야기 말입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판사에게 재판을 받는 것이 불안하고 못 미더웠던 것일까요. 같은 맥락에서, 제가 처음 법관으로 임명된 날 공식 행사가 끝나고 신임 법관들만 모인 자리에서 대법원장님이 저희에게 “어서 늙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지요.





2. 너무 잘난 여자는 부담스러워

2011년 제가 사법연수원에 다닐 때의 일입니다. 사법연수원 42기 자치회장을 비롯한 연수생 몇 분과 함께 국회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어느 유명 국회의원은 저에게 “공부 열심히 하지 마, 남자들 기죽어. 여자가 공부 너무 잘하면 시집 못 가”라고 했습니다. 물론 농담으로 한 이야기였겠지만 불쾌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괜히 피곤하게 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저 허허 웃어넘기고 말았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결혼(연애) 시장에서 남자 판사는 몸값이 높는데 여자 판사는 인기가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게 현실이라고요? 잔인하시네요. 제가 걱정되어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럼 소개팅이라도 좀….

3. 이정미 재판관의 헤어롤

박근혜 前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있던 2017년 3월 10일 아침, 이정미 前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뒷머리에 분홍색 헤어롤 2개를 달고 출근한 모습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일하는 여성들이 이정미 前 재판관의 그와 같은 모습에 크게 공감했다고 하죠.

‘샌드버그가 저커버그처럼 입어도 성공할까’라는 기사(김종명 기자, 2016. 6. 1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93790>)를 소개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의 최고운영책임자인 세릴 샌드버그는 성공한 여성의 아이콘으로 통하는데, 언제나 단정한 정장 차림에 하이힐을 신고 다닌다고 합니다.

반면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항상 똑같은 회색 티셔츠와 청바지만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하지요. 이 기사는 ‘만일 샌드버그가 저커버그처럼 캐주얼 차림으로 다녔더라도 성공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전문직 남녀의 옷차림에 관한 이중 기준이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업무 능력 외에도 외모가 매력적일 것이 요구되고, 따라서 화장이나 옷차림 등에 신경을 많이 쓸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외적으로 ‘용모 단정’해야 업무도 잘할 것이라는 편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남성에게도 해당하지만, 여성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화장을 하지 않는 여성은 예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 직장인들은 일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하는 등 외모를 가꾸는 데 신경을 써야만 하고(여기에 육아와 가사까지 더해진다면 더욱 끔찍하겠지요. 그런데 수많은 ‘일하는 엄마’들이 이러한 일을 실제로 겪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결국 출근길에 헤어롤을 빼는 것마저 감빱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편견을 걷어내면 우리가 보입니다”

판사라는 지위에서 나오는 권위, 서로를 존중해주는 법원 내부의 문화, 무엇보다도 의식 있고 배려심 깊은 부장님, 동료 판사님들과 직원분들 덕분에 여판사로서 다른 여성 직장인들에 비하여 차별이나 불편함을 훨씬 적게 느끼면서 지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차별적인 편견들은 사회적으로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나쁜 의도가 없더라도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 차원에서도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관 등을 대상으로 한 성 인지(性認知)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법원행정처 양성평등연구반에서는 양성평등을 위한 행동 원칙 등을 담은 양성평등 가이드북(그 제목이 ‘편견을 걷어내면 우리가 보입니다’입니다)을 발간해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법원 내 성차별·성희롱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신속하고 합리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양성평등담당법관 제도가 본격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발판으로 성 차별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법원의 모든 구성원이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법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부드러운 글쓰기

— 만년필의 매력 —

글_권정현 마산지원 실무관





예정에도 없던 글쓰기 계획에 어떤 것을 쓸지부터 고민이었다.
 색다른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뛰어난 특기도 없고...
 만년필을 붙잡고 하던 이런저런 낙서. 물끄러미 보던 만년필이 주제로 떠올랐다. 유레카~

1945년 뉴욕, '물속에서도 쓰이는 펜'이라는 광고에 개당 12달러 50센트라는 당시로서는 비싼 가격의 새로운 필기구가 단숨에 2,500개가 완판되었다. 만년필이 볼펜에 필기구의 대명사 타이틀을 넘기는 순간이었다.

19세기 후반 미국의 보험판매원 워터맨에 의해 실용화된 만년필은 편리함과 품격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거위 깃털 펜촉을 대표적인 필기구 자리에서 몰려나게 하였다.

이후 만년필은 반세기 동안 상류층에서 하류층까지, 중요한 국가 간 조약에서 일상의 간단한 메모까지 글쓰기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였다.

우리가 쓰는 만년필이라는 용어는 구한말 누군가가 순종 임금께 자자손손 물려주어 만년을 쓰는 붓이라며 선물한 것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¹⁾

1) 순종 임금의 자손이 없었기에 그 말을 듣고 서운한 마음에 만년필을 받아 뒤돌아 앉았다는 일화도 있다고 한다.



Thank you



만년필은 크게 잉크를 넣는 컨버터 방식과 프린터기의 토너를 교환하듯 잉크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교환하는 방식이 있다(요즘은 아예 잉크를 교환할 수 없는 일회용 만년필도 출시되고 있다).

만년필은 핵심 부분인 펜촉의 소재와 굵기에 따라 필기감이 달라진다. 일반적인 펜촉의 소재는 금이나 스테인리스스틸이며, 펜촉의 굵기는 제조사마다 다르지만 가장 가는 EF, 가는 F, 보통 굵기인 M이 주류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펜촉의 잉크가 굳으면 미지근한 물을 담은 컵에 펜촉을 담근 후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잉크를 씻어내면 된다-개인적으로는 세면대에 미지근한 물을 틀어 펜촉을 3, 4분간 데운 후 위 방법대로 씻어내면 더 깨끗이 세척 가능하여 자주 이용하고 있다-. 또한 만년필을 너무 꼭꼭 눌러쓰면 펜촉이 벌어질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만년필은 그 무게를 이용하여 글을 쓴다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만년필은 비싸기도 하고, 불편한 점이 있는 전근대적(?)인 필기구이지만 아직도 애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은 다른 필기구보다 애착이 간다는 점이다. 만년필의 펜촉은 사용자의 필기 습관에 맞게 닳아서 오래 쓸수록 쓰는 사람을 닮아가는 - 즉 나만의 필기구라는 - 매력이 있다.

그리고 종이에 글씨를 쓸 때 느껴지는 부드러운 필기감과 사각거림은 꼭꼭 눌러써야 하는 연필, 볼펜보다 글쓰기의 재미를 더해준다. 이 느낌 때문에 만년필로 끄적이다 보면 고민하던 것이 해결되거나, 망각하고 있던 중요한 일, 잊힌 추억도 떠오르게 된다 - 아마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16년간 수없이 많은 필기를 한 우리에게 글을 쓴다는 행위는 일정 부분 특화되어 있어 무의식 중에 그때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지?

만년필은 기계식 시계와 닮은 점이 많다.

1960년대 일본 세이코사에서 수은전지시계를 발명하여 시계 업계에 일명 '쿼츠 혁명'을 일으켰다. 이 시계는 기존 기계식 시계(일명 오토매틱 시계)는 결코 접근할 수 없는 정확성, 얇은 부피, 기존 시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을 갖춰, 스위스의 수많은 시계 업체가 도산하였다(근근이 살아남은 업체들도 기계식 시계 분야를 축소, 매각하고 수은전지시계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였다). 하지만 기계식 시계는 단순히 정확성을 추구하는 도구인 것만이 아니라 품격을 표현하는 패션 소품으로서 남다른 고급스러움을 무기로 1990년대 이후 부활하고 있다.

만년필도 다양한 필기도구와 디지털 기기에 밀려 위 기계식 시계와 같은 운명에 놓여 있었지만, 그 독특한 매력으로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2) 3)}

느리고 때로는 귀찮아도, 잉크가 천천히 종이에 스미는 것을 즐기는 여유를 느끼고 싶다면, 글 쓰는 재미 또는 일상의 조그만 변화를 느끼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한동안 사용하지 않아 책상 서랍 속에서 굴러다니는 만년필을 다시 꺼내보는 것은 어떨까? ☐



2) 캘리그래피

3) 파커만년필의 피터 벤틀리 前 사장은 "펜이 칼보다 강한 이상 펜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책을 만드는 일

- 법원도서관 주요 발간자료 소개 -

글_서여정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법관으로 임관했을 때 저를 보고 ‘판사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이 너무나 어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해 두해 법관으로서의 연차가 쌓이면서 어느덧 제 이름이나 성 뒤에 붙는 ‘판사님’이라는 호칭에 대한 어색함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2017. 2. 20.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으로 발령이 나면서 이제는 ‘심의관님’이라는 호칭으로 보다 자주 불리게 되었는데, 이 역시 처음에는 엄청 어색하였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지 한참이 지났건만 누군가 ‘아주머니’라고 부를 때 절대 뒤돌아보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이건 어색함이 아니라 의지의 표현인가요?). 아무튼 이제 그런 어색함도 3개월이라는 시간과 함께 점점 익

숙함으로 바뀌어 갑니다. 또한 호칭에 대한 어색함이 사라져감과 동시에 조사심의관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익숙함도 조금씩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법원도서관 열람실 서가에서 우아하게 책들을 살펴보며 정리하는 모습? 두꺼운 뿔테안경을 끼고 환한 스탠드 불빛 아래 판례공보를 교정 보고 있는 모습? 아니면 단아한 외모로 친절하게 법률과 판례를 설명하는 모습?

저 역시 조사심의관으로 발령받기 전에는 그런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막상 법원도서관에 와 보니 예상했던

모습과는 다른,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양한 일 중의 하나로서, 마치 아기를 돌보듯 세심한 손길과 노력, 협동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자료편찬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법원도서관에서는 판례공보 이외에도 연간 여러 종류의 자료를 편찬,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법원도서관에서 편찬, 발간하는 주요자료 중 판례공보 이외의 자료들에 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대법원판례집

대법원판례집은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을 비롯하여 일정기간 동안 선고된 대법원 판결·결정 중 그 선례적 의미가 큰 것으로서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판례들을 묶어서 연 1회 발간하는 대법원의 공식판례집입니다. 1956년 제1권을 발간한 이래로 2016. 8. 10. 제63권까지 발간되었으며, 현재 제64권의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94년부터 1년에 2회(상반기, 하반기) 발간하다가, 2013년부터는 연 1회 발간하되 해당 분야 판례의 분량에 따라 2권 내지 3권으로 편을 나누어 발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판례집에는 해당 대법원판결의 참조조문 원문뿐만 아니라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도 함께 수록하고 있으므로, 해당 대법원판결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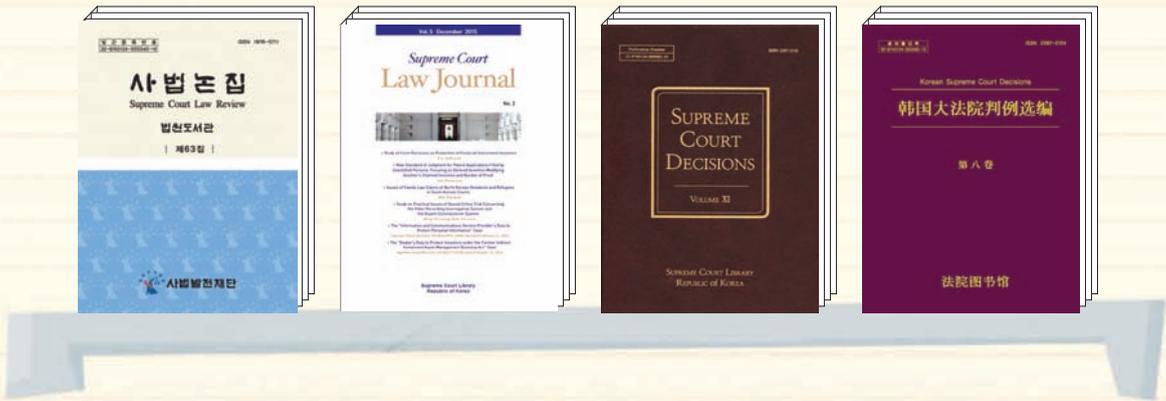
2. 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판례해설은 대법원판례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동종·유사 사건에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당해 사건을 조사·연구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작성한 해설문본을 모아 편찬한 책입니다. 1984. 12.부터 발간을 시작하여 매년 2회(상반기, 하반기) 발간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도서관에서는 상반기 발간분인 대법원판례해설 제109호, 제110호의 초교, 재교, 저자교정(감수), 삼교의 작업을 마치고 조사심의관 최종검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순경에는 막 발간된 대법원판례해설의 신선한 종이냄새를 맡아보시는 것은 어떨지요?

3. 사법

다음으로 학술지 사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법은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재단에서 발행하는 법률분야의 전문학술지로서 2007. 9. 창간한 이래 연 4회 계간지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사법은 법학계와 실무계의 심층적인 연구와 활발한 교류를 통한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마련된 학술마당으로서 2013년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평가에서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권위 있는 학술지입니다. 사법의 발행처는 사법발전재단이지만, 편찬과 관련한 업무는 법원도서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은 편집위원장인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님을 보좌





하여 조사심의관이 편집간사로서 전반적인 발간과정에 세심하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사법에 논문게재가 확정되면, 투고료도 지급하고 있으니, 평소 관심 있게 연구하신 분야의 논문을 주저하지 말고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의 자세한 투고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 사법부 소개 중 학술지 「사법」 코너(http://www.scourt.go.kr/judiciary/journal/intro/intro_01/index.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사법논집

사법발전재단에서 발행하고, 법원도서관에서 편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책은 사법논집입니다. 사법논집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학술 및 법령 관련 조사·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간행물로 발간하는 논문집으로서, 매년 초 법률조사연구신청에서 선정된 연구과제에 관하여 제출된 논문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논문’을 엮어 발간하는 책입니다. 1970년 제1집을 발간한 이후 연 1회 발간하며, 보통 1회 발간 시 2집이 발간됩니다. 2016. 12. 21. 제62집과 제63집이 발행되었습니다. 연혁적으로, 1999년까지는 사법논집에 수록되지 못한 논문들을 모아서 엮은 ‘사법연구자료’도 사법논집과 함께 발간되었으나, 이후 대상논문편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2000년 이후에는 더 이상 발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마다 연말연시가 되면 새해

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되는데, 내년 초에는 법률조사연구신청과 논문제출로 사법논집에 당당히 자랑스러운 이름을 올려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5. 외국사법연수논집

외국사법연수논집 발간 내규(1999. 9. 4. 법원도서관 내규 제46호) 제1조는 “이 내규는 해외연수 법관 및 법원직원들이 외국의 연수기관 또는 국제회의에서 얻은 지식과 자료를 외국사법연수논집으로 발간하여 국내에 널리 소개함으로써 재판실무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도서관은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전달받은 해외연수논문을 심사하고 그중 국내에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는 논문을 선별하여 연 1회 외국사법연수논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다양한 국가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법관 및 법원직원들의 연구노력과 성과를 보다 폭넓게 공유하고자 좀 더 내실 있는 논문심사와 수록편수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6. 영문저널

2011. 6. 13. 제14회 아시아 태평양 대법원장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위 회의에 즈음하여 법원도서관은 대법원 영문저널(Supreme Court Law Journal)

“법원가족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쉽 없이 달리겠습니다!”

복지후생담당관실

좋은 복지는 때로는 높은 연봉보다 큰 위력을 발휘한다. 돈보다는 개인의 행복과 직장에서의 충족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인들에게 좋은 복지란 애사심, 충성심이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맞춤형 복지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24시간이 부족하게 달리고 있는 법원행정처 복지후생담당관실을 방문해보았다.

글_이경희 · 사진_장병국



좋은 복지, 행복한 법원, 신명나는 직원

복지후생담당관실의 분위기는 밝고 유쾌했다. 십수 년은 호흡을 맞춰온 오랜 짝꿍들이 모인 듯한 복지후생담당관실은 사실 태어난 지 2년여밖에 안 된 신생부서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숫자는 가인연수관에서 근무

하는 직원 3명을 포함해 총 20명이다. 놀라운 것은 직원들 모두 법원 가족들의 복지를 위해 힘껏 일해보겠다고 희망해서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 하는 일도, 해야 할 일도 많은 이곳에 활력이 넘치는 이유가 있는 셈이다.

복지후생담당관실의 최근 핫 이슈는 바로 가정에서 이용



가능한 '대법원 복지포털(<http://www.court-bokji.com>)' 사이트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는 복지후생담당관실의 역량이 집중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서, 지금까지 직원들로부터 호평 받고 있는 장례토달서비스, 이사서비스 등의 복지포털 제휴서비스들을 가정에서 PC나 휴대폰을 이용해 가족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회, 경찰청, 서울시 등 많은 기관들이 제휴를 맺고 있는 복지서비스 전문기업과 제휴를 맺어 건강관리·여행/문화·복지물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 콘텐츠를 법원가족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심리상담제도도 도입했다. 이는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치유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직원들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무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사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강제가 아님에도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 상호부조제도는 직원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유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온라인교육제도도 어학, 인문학, 리더십 강의 등 2,000여 개의 강의를 직원들이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

원들의 개인역량 강화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 복지제도의 유지, 개선, 발굴은 계속된다

앞으로 복지후생담당관실의 목표는 명확하고 분명하다. 소통과 협업을 기본으로 직원들의 복지 니즈를 충실히 파악해 제도를 만든 뒤, 그 제도를 분석하고 타 기관과도 냉정히 비교해 유지하고 개선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 없이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

이동룡 담당관은 “앞서 말한 복지제도 외에도 ‘복지포털’에는 공무원연금 혜택, 100가지가 넘는 임신·출산 등 라이프사이클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복지포털에 들러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실은 언제나 열려 있는 곳입니다. 전화, 메일, 법원제안서 등 형식의 제한 없이 누구든지 복지와 관련해 좋은 생각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반영하겠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일할 맛 나는 행복한 법원을 만들겠다는 꿈을 함께 꾸는 곳, 복지후생담당관실의 직원들은 자신들이 흘린 땀방울이 좀 더 나은 법원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



어린이의 시선으로 법과 법원을 바라보다

법원전시관 어린이기자단 발대식

지난 5월 1일, 대법원 법원전시관 앞이 사람들로 북적였다. 제1기 어린이기자단 발대식에 참여하기 위해 찾아온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법과 법원의 역할을 알리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족한 어린이기자단. 그 첫 번째 발대식 현장에 다녀와 보았다.

글_ 이경희 · 사진_장병국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제1기 법원전시관 어린이기자단으로 선발된 인원은 총 20명이다.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고 온 어린이부터 멀리 대전에서부터 달려온 어린이까지 4~6학년 남녀가 골고루 섞여 선발된 어린이들은 '기자'라는 새로운 직책 앞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이날 어린이들에게 기자증을 수여한 대법원 조병구 공보관은 제1기 어린이기자단 발족을 축하하면서 이번 기자단 활동을 통해 법원과 법원이 하는 일, 판사, 변호사, 검사에 대해 자세히 익히고 제1기 기자단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어리지만 열정은 어른 못지않아요

기자증을 받은 어린이기자단 모두 대법원 중앙홀로 이동했다. 함께 단체 사진을 찍은 뒤 소법정에서 간단한 오리



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어린이 기자단 앞에 나선 사람은 이종표 홍보심의관이였다. 그는 맡고 있는 업무 등을 자세히 설명한 뒤 어린이기자단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처음에는 미적거리며 눈치를 보던 어린이들이 하나둘 말문이 터지자 곧 어른들이 깜짝 놀랄 수준의 질문들을 쏟아냈다.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국제법으로 일본을 처벌할 수 없는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을 이기는 시대에 판사가 판결을 계속할 수 있는지, 판사들은 모든 법을 외우고 있는지 등등 날카롭고 예리하며 귀여운 질문들이 계속된 것. 이종표 홍보심의관은 예상 밖의 까다로운 질문들에 진땀 흘리면서도 차근차근 세밀하게 답변해주었다.

법을 좀 더 가까이, 법원과 좀 더 친근하게

이어진 순서는 법원전시관 법정체험실에서 열린, KBS 사회부 손서영 기자의 '기사 작성' 강의였다. 손서영 기자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와서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무엇?"이라는 출발점에서 시작해 쉽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좋은 기사를 쓰는 법에 대해서 꼼꼼히 강의를 어린이기자단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을 두루 둘러보는 것으로 발대식을 마친 어린이들은 2017년 5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 2017년 12월 31일까지 법원전시관과 법원의 행사에 참여하고 직접 취재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

MINI Interview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활동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대법원 공보관실 박가영 사무관



제가 법원전시관 어린이기자단은 대법원 전시관을 찾는 주 관람객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기자단을 만들어보자는 모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이라는 곳은 어른들에게도 어렵고 먼 곳이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데, 이는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법원전시관은 많은 사람에게 오픈되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곳인 만큼 기자단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법원을 좀 더 친숙하게 느낄 기회를 가지길 바랍니다.



“궁금증을 갖고 열심히 찾고 물으세요”

KBS 사회부 손서영 기자

처음 대법원에서 어린이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강의 제의가 들어왔을 때 어린이기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수락하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 정부기관에서 기자단을 선발하는데, 취지는 좋으나 단편적으로 운영되다 보면 단순 홍보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발족한 어린이기자단의 취재 활동을 대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다면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린이기자들은 본인의 궁금증에서 출발해 적극적으로 주제를 잡길 바라고, 많이 묻는 걸 주저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린이기자단 활동으로 법과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전 글꽃초등학교 5학년 안서영



저는 오늘 법원전시관 어린이기자단 발대식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에서 올라왔어요. 작년에 법제처에서 어린이법제관을 한 경험이 있는데 5학년에 올라오면서 법과 법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어린이기자단에 지원했습니다. 오늘 판사님과 기자님 말씀을 듣고 감동도 많이 했는데 기자로서 제가 쓰는 글이 부족한 건 아닐지 걱정도 많이 돼요. 저의 장래희망이 변호사인 만큼 이번 어린이기자단 활동을 통해 법과 관련해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서 가지면, 유죄 vs. 무죄?



- #1: 이기태(저동초 4학년, 9세)는 2017. 5. 13. 일산 롯데백화점 앞에서 길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하였다.
- #2: 이기태는 지갑을 주워서 가져가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 #3: ‘떨어뜨린 사람이 잘못이고, 나는 운이 좋은 거야~’라고 생각하며, 지갑을 집어 들고 주머니에 넣었다.

여기서 잠깐!

길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서 가지면 죄가 될까요?

이기태 : “죄가 안 되죠. 남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닌데 무슨 죄가 되겠어요”

명쾌한 판사 : “아닙니다.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서 가지면 형법 제360조의 점유 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기태 : “아하, 그렇군요! 오늘 주운 지갑을 당장 경찰서에 가져다주겠습니다.”



저동초 4학년
이기태

대법원 어린이 주간 행사 치킴기



염리초 5학년
노윤서



법원사람들 7월호부터 어린이기자단의 기사가 본격적으로 소개될 예정입니다.

“대법원 방문을 통해 법이 쉽고 가깝게 느껴졌어요”

양원주부학교 학생들 대법원 견학

글_박주광 · 사진_장병국



5월 11일 오전 10시, 양원주부학교 여학생 39명이 대법원 법원전시관을 방문했다. 평균 나이 60~70대의 만학도인 이들은 생전 처음 법원전시관을 견학하면서 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경청했다. 인술자의 설명을 들으며 반짝이는 눈과 입가에 만개한 웃음을 보면 여느 여고생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학생들은 먼저 법원전시관에서 법원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법의 기원과 의미, 한국 법의 역사, 재판의 종류와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법원과 판사의 역할, 판사가 되는 길 등을 견학하던 중, 판사가 되기 위한 학습량을 직접 보면서 그동안 말로만 듣던 판사들의 공부 분량에 감탄하기도 했다.

이번 견학에서는 최웅영 판사가 직접 학생들과 마주하며 법과 판결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보냈다. 오랜 세월을 겪은 여학생들은 상속 문제, 채무 문제, 자식들의 생활 문

제 등 생활밀착형 질문을 많이 했고, 이에 최웅영 판사는 “그 문제들에 대해 직접 확인을 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법률을 근거로 간략한 해당 판례를 설명해 드리겠다”며 성심을 다해 알려줬다. 최웅영 판사는 “우리 판사들은 현재 제정된 대한민국 법률을 근거로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한 건의 판결을 내리기 위해 다양한 법률적 해석과 판례를 분석한다. 이는 판결로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라며 “오히려 사법시험을 위해 공부하던 것보다 판사가 돼서 법률을 연구하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다. 고시 공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설명해 웃음바다를 만들었다.

견학을 마친 이순례(63) 학생은 “방송에 나오던 대법원을 실제로 보고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직접 판사님과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 엄하고 무섭게만 느껴지던 판사님이 정말 내 자식 같고 편해졌다. 양원주부학교에서 이런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도 국민이 판결로 억울함 없게 공정하고 엄중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판사님들께 부탁드린다”라고 견학 후기를 말했다. 임금숙(73) 학생은 “이번 견학으로 법과 법원, 판사님들에 대해 새롭게 느끼고, 또 배워간다. 어떻게 그 많은 시간 동안 공부를 했는지에 놀랐다. 손자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귀국하면 꼭 대법원에 데려와서 견학시켜주고 싶다. 귀한 시간을 내어 직접 법에 대해 설명해주신 판사님께 대단히 감사하다. 양원주부학교에도 고마울 뿐이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연이어 전했다. c

박충현
의정부지방법원 행정관

“내 인생의 골든 룰을 찾아서”

홍차를 제대로 우리기 위해서는 좋은 차를 선택하고, 신선한 물을 적당히 끓여 차의 양과 우리는 시간을 조절해야 한다. 대다수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다구를 예열해두고, 고른 농도로 따르기까지 하면 더욱 맛있는 홍차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홍차를 맛있게 우려내는 방법을 골든 룰이라고 한다. 박충현 행정관 또한 자신을 제대로 스타일링하는 골든 룰을 찾기 위해 이날 스타일링 큐를 찾았다.

글 강나은 · 사진 이성원

법원 사람들의 새로운 스타일 도전과 삶의 이야기를 담은 코너로, 헤어부터 의상까지 스타일 변신의 기회를 드립니다.



Style Change



익숙하면서도 새롭게, 따로 또 같이

박충현 행정관은 출근 복장으로서는 주로 흰 셔츠에 정장을 입고 스니커즈를 신는다. 이날 박충현 행정관과 함께 스튜디오를 찾은 아내가 바로 평소의 스타일리스트다. 패션업계에 몸담고 있는 아내 덕분에 그의 평소 스타일은 조금 남다르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정장에 구두를 신는 반면, 그는 주로 캐주얼 정장에 스니커즈를 코디하며, 패셔너블한 안경과 파스텔 톤의 색감으로 포인트를 살린다.

“사실 아내의 스타일링을 최근까지도 안 믿었어요. 제 감각에 따라서 회색, 군청색, 검은색만 입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틀리고 아내가 맞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카키색 옷도 샀어요.”

그가 법원에 입사한 지 18년이 넘다 보니 무채색을 주로 입는 다른 직원들의 모습에 익숙해서였을지도 모른다. 오래 지켜오던 스타일링에서 새로운 시각을 발견했듯이 그는 매번 반복되는 업무에서도 나름의 새로움을 발견하는 편이다.

“저희는 보통 1년마다 부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반복되지만 작게 보면 새롭죠. 최근에는 종합민원실 내에서 무계장 보직을 맡게 되었는데요. 저번 업무가 창구에서 민원인들을 직접 대하며 내 일만 열심히 해야 하는 자리였다면, 지금 업무는 종합민원실장님을 도와 종합민원실의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 일을 해야 해서 구성원들과 두루두루 소통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전화 민원 응대 업무는 어려워졌다. 과거에는 업무와 연관된 전화만 받았지만, 지금은 민원인들의 전화를 모두 받다 보니 업무 이상의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들이 해야 하는 일을 요구하거나 직접 내방하여 본인 확인이 되어야 알려줄 수 있는 내용까지도 전화로 해결하려는 민원인이 많기 때문.

하지만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도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배려 가득한 동료들 덕분이다.

“종합민원실이라는 부서가 민원인들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며 해야 하는 일이 대부분이라서 큰소리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럴 때마다 진이 빠지지만, 종합민원실장님 및 선·후배 동료들이 서로 도와 격려와 위로를 해주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또 보안관리대 직원분들이며, 민원안내 도우미 분들까지도 역할 분담이 잘되어 있



어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어려울 때는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분위기 덕분에 부서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올해 부임하신 법원장님과 사무국장님도 종합민원실이 의정부지방법원의 얼굴이라 생각하시고 환경개선에도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근무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어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함을 느끼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최근에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도 또 하나 찾아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시간을 법원에서 일하면서 보내잖아요. 업무시간 외에도 복잡한 일이 남아 있으면 머릿속으로 계속 고민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피곤함이 쌓여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야 직장 밖으로 시야를 넓혀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찾아보면 취미활동이나 운동, 외국어 등 몰랐던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활동을 하면서 여유 시간을 보내다 보니 업무에 활력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도 직장 밖의 즐거움을 찾으라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꽃을 든 로맨틱 가이

최근 그는 차(茶)를 배우며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다. 이삼 년 전 커피에 대해 배우면서 로스팅과 블렌딩, 드리핑을 알게 돼 자주 집에서 드립커피를 마셨는데 이번에는 밀크티에 꽂혔다. 밀크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홍차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다. 단순히 차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차의 역사부터 만드는 법, 여러 종류의 홍차를 비율대로 섞어서 마시는 법, 레몬 껍질로 향을 더하는 등 자신만의 홍

차를 만드는 비법까지 배운다.

한편으로는 고등학교 때부터 20년이 넘게 쳐온 기타 실력을 바탕으로 법원 내 동아리 가칭 ‘기타등등’을 만들기도 하고, 아들과 친구들에게 기타를 가르쳐주기도 한다. 그리고 보니, 그가 한창 기타를 치던 시절 학교 앞 카페에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던 지금의 아내가 테이블에 앉아 그와 눈을 마주치고 있었다. 마침 이날 그는 캐주얼 정장에 어울리도록 꽃을 들고 있고 아내는 그런 그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보고 있으니 27년째 연애 중인 그들의 모습이 더욱 로맨틱하게 다가왔다. 그때와 달라진 것은 둘 사이의 사랑을 증명하는 두 아이가 있다는 것. 그는 아내에게처럼 두 아이에게도 다정다감한 아빠다. 요즘은 고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인 두 아이와 자주 캠핑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실 제가 예전에도 지금처럼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족과의 시간이 더 소중해지고, 과거에 그렇게 하지 못한 저 자신에게 후회가 남더라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큰애도, 작은애도 사춘기 없이 아빠, 엄마와 잘 지내고 있고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하면 잘 따라와 줘서 다행이죠.” 이날의 스타일링 중 하이라이트였던 의상은 바로 핑크색 정장이었다. 그 또한 처음에는 핑크색 정장을 보고 당황스러워했다.

“핑크색 옷은 한 번도 입어보지 않았고, 아마 앞으로도 입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핑크색이 남자에게 어울리기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핑크색 정장은 그의 부드러운 이미지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다양한 스타일링을 해보고 싶기는 하지만 직장에 다니다 보니 늘 평범하고 편한 옷만 찾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색깔이나 헤어스타일만 조금 바뀌어도 느낌이 180도 달라지네요.”

원래는 남들 앞에서 드러내는 것을 안 좋아한다는 그는 최근에 안 해본 것에 도전하는 것을 즐기고 있다며 낯선 스타일의 옷을 두려움 없이 걸쳤다. 그의 부드러운 로맨틱함은 이런 강한 자신감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



그는 최근에 안 해본 것에 도전하는 것을
즐기고 있다며 낯선 스타일의 옷을 두려움 없이 걸쳤다.
그의 부드러운 로맨틱함은 이런 강한 자신감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



박충현님을 위한 스타일링 TIP

Fashion

첫 번째, 군청색 포인트가 살아 있는 흰 셔츠에 빈버지로 시원하고 세련된 느낌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가로무늬로 색상이 강한 셔츠는 마른 상체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지루해 보일 수 있는 스타일에 포인트가 되어줍니다.

두 번째, 아이보리색 셔츠에 흰 버지로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을 완성했습니다. 자칫 심심할 수도 있는 상·하의 배색이지만 여기에 딥 그린색 재킷을 걸치고 소매를 걷으면 스타일리시하면서 더워 보이지도 않는답니다.

세 번째, 파스텔 톤 인디핑크 슬랙스에 캐주얼한 화이트 티셔츠로 단정하게 연출. 여기에 재킷을 걸치면 좀 더 세련된 스타일이 완성됩니다.

Hair & Make up

첫 번째 헤어는 정수리 볼륨을 살리고 옆통수를 눌러주는 한편 웨이브를 넣지 않아 깔끔하고 세련되 보이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헤어는 자연스러운 텍스처의 포마드 머리로 옆머리가 뜨지 않도록 머리카락 방향을 대각선으로 잡아주었습니다.

피부는 어둡고 칙칙한 톤을 라벤더 베이스로 보정하고 파운데이션에 에센스를 섞어 묽게 만들어서 얇게 발라 자연스럽게 표현했습니다. 눈썹은 채도 없는 아이브로 컬러로 표현하여 머리 색이 희어지면서 나는 애시 컬러와 맞추고, 립은 코랄 베이지로 자연스러움을 더했습니다.

tip

평소 편안한 옷차림을 좋아한다고 하셨는데요, 편안한 옷들도 좋지만 가끔은 기분전환용으로 컬러감 있는 의상도 좋지 않을까요? 단 피부 톤이 조금 어둡기 때문에 너무 튀는 컬러보다는 내추럴한 베이지 컬러에 살짝 톤다운된 포인트 컬러를 매치하는 것이 더 스타일리시하고 젊어 보인답니다.

- 장빛나 스타일리스트 -

인문학이라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광고인 박 옹 현

사람 사는 모습이 바로 인문학이라고 말한다.
인문적 훈련이 되면 길가에 새로 돌아난 잎을 보면서도 설레고, 늘 먹던 밥이 더 맛있어지고,
퇴근길 하늘에 떠 있는 달이 무척 아름답게 보인다고 한다.
광고인 박옹현의 시선이다.

글_백영순 · 사진_장병국

Q. 최근 광고인 박옹현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생존'이죠. 광고업계도 변화를 겪고 있어요. 옛날과 달리 4대 매체 광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TV와 신문을 안 보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접점을 잡을 수 있을지가 모든 광고회사의 고민입니다. 함께 일하는 후배들을 잘 육성해서 회사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에 할애를 많이 하죠. 보람 있는 일로는 테드(TED) 형식의 스피치를 통한 대학생 자아 찾기인 '망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잘하고, 확산해나갈 방법이 또한 고민이죠.

Q. <책은 도끼다> <다시, 책은 도끼다>를 통해 박옹현의 인문학 강독회를 본격적으로 공개하셨습니다. 인문학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시선을 바꿔주거나 시선을 만들어준다고 봅니다. 인문학이 생활환경이나 연봉 같은 객관적인 조건을 바꿔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대신 인문적인 훈련을 하고 나면 똑같은 객관적 사실을 보는 주관적 시선이 달라지더군요. 그전까지는 느끼지 못하던 계절의 변화가 되게 반갑고, 새소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새소리가 축

복처럼 느껴지고, 퇴근하면서 보던 하늘의 달이 무척 아름답게 보이고, 똑같은 6,000원짜리 된장찌개를 먹어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시선들이 인문적인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예전에 라디오방송 고정 게스트로 나갔는데 청취자 한 분이 '인문학을 하면 밥이 나옵니까?'라는 질문을 보냈어요. 할 만한 질문이죠. 그분의 직업이나 처한 상황을 모르다 보니 이런 답변을 했어요. 인문학을 해서 밥이 되는 직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직업이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문적 훈련이 된 이들은 밥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요.

같은 된장찌개를 먹더라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먹는 사람과 스마트폰을 보면서 먹는 사람의 식사시간은 다른 거라는 겁니다. 번외이기도 한데, 밥 먹을 때 핸드폰을 내려놓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당장 봐야 하는 중요한 정보도 아니고, LTE 급으로 검색이 꼭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현재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습관이 좋은 것 같아요.





인문적 훈련은 자연스럽게 충분히 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일단 내 주변에 만족하는 시선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세밀히 보게 되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뽑아낼 수 있어요. ○○



Q. <인문학으로 광고하다>는 박웅현의 정체성이기도

**한데요. 광고와 인문학, 언뜻 어울리기 어려운 조합인데
이 둘의 접점을 어떻게 찾았나요?**

인문학이라는 것을 문학, 역사, 철학이라고만 보면 연결이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인문학은 그냥 사람 사는 모습에 대한 겁니다. 누구는 인간의 문이라고도 하잖아요. 그걸 인문학이라고 본다면, 저는 인문학이 아니면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광고는 결국 소비자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하고, 소비자들에게 쓰는 연애편지잖아요. 사람들 마음속 흐름을 연구하고, 머릿속 풍경을 궁극해해야 하는 것이 인문이라고 봅니다. 광고는 결국 사람을 알아야 한다고 봤어요. 저는 너무 당연하게 인문학이었고, 저에게 '인문학으로 광고하다'는 너무도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저는 오히려 인문학이 아니면 뭘로 광고를 해야 하는지를 다른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Q. 그렇다면 인문적 훈련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타고나는 부분도 있을까요?

인문적 훈련은 자연스럽게 충분히 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변해요. 그러니 안 되는 것 같죠. '나는 재능이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일단 내 주변에 만족하는 시선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세밀히 보게 되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뽑아낼 수 있어요. 이 직업이 아니라면? 내가 20대라면? 내가 남자였다면? 내가 피렌체에 살고 있다면? 다른 곳을 보는 건 미련한 것이예요. 물론 내 조건이 100%도 아니고, 지금의 내 상황이 내가 그리던 온전한 그림도 아니겠죠. 온전한 삶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나보다 창의성이나 사소한 것에 집중하는 힘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서점에 있어요.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거죠. 도종환 시인은 하루에도 몇 번씩 눈에 걸리는 담쟁이로 어떻게 시를 썼는지? 간장 계장 골목에서 수많은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간장 계장으로 안도현 시인은 어떻게 시를 썼는지? 유홍준 교수는 어떻게 밥 한 공기로 백제를 연상했는지? 그런 훈련



된 사람들의 시선을 내 몸속으로 가지고 들여오려는 노력이 쌓이면 '10년 전보다 풍요롭게 살고 있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믿지만 타고난다는 것은 믿지 않아요.

Q. 광고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박웅현의 책 읽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 달에 3권 정도, 시간 날 때마다 읽습니다. 주말에 별 계획을 잡지 않고 집에서 늦잠 자고 브런치 먹고 책 읽어요. 또 사무실에서 시간이 생길 때, 여행 갈 때 읽죠.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는 강박도 안 가지려고 해요. 연필 들고 책을 읽는데 '와~' 하는 문장이 나오면 줄을 치고, 그 문장은 별도로 타이핑해두고, 그렇게 정리해둔 폴더들이 이만큼 있어요. 필요할 때 폴더를 열어 찾아보죠. 내가 믿는 선후배가 추천하는 책,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후속작, 고전 위주로 선택해요. 베스트셀러 목록을 따라가지는 않아요. 최근에 흥미롭게 본 책은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시>, 30년 후배인 대학생이 추천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여성 작가인 로런 그로프의 소설 <운명과 분노>예요.

Q. <여덟 단어>에서 자존, 본질, 고전, 견, 현재, 권위, 소통, 인생 등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를 성찰하셨는데요. 그중에서도 법원사람들에게 건네고 싶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법원사람들이라는 집단명사로 동일한 특징이 나올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거칠게 말씀드리자면 '소통'과 '견'을 전하고 싶어요. 법을 다루는 분들이라 일반인과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잖아요. '소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법률용어가 어렵죠. 화자가 하고 싶은 말과 정확도만큼이나 청자의 수용태도와 수용능력을 배려하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한 법을 잘 모릅니다만, 법과 회계 이런 게 골치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정신을 많이 쓰는 일이지요. 피곤할 수 있으니, 꽃 하나 바라보는 시선(견)이 생기면 요즘 말로 힐링 같은 것이 가능하겠죠.

Q. 광고인 박웅현의 다음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을까요?

점점 끈대가 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나이 들까, 그리고 아직도 덜 훌륭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지, 이 두 가지에 저의 시선이 가 있습니다. ☐



소리 없는 살인마,
미세먼지 '심각'

중국발 미세먼지가 도를 넘어섰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요즘 들어 그 수위가 훨씬 높아졌다. 미세먼지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소리 없는 살인마, 미세먼지 대처법을 소개한다.

글_편집부

기대수명까지 위협하는 ‘미세먼지’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하는 습관이 하나 생겼다. 바로 스마트폰으로 오늘의 미세먼지 상태를 살피는 것이다. ‘ 좋음’과 ‘보통’이면 다행이지만 ‘나쁨’이면 걱정부터 앞선다. 그런 날이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마주칠 수 있다. 공기청정기도 이제는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 우리 집 공기를 책임지고 있다. 보다 못한 지방자치단체들도 미세먼지 저감 관리 행정에 집중하고 있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미세먼지 줄이기에 두 팔을 걷어 붙이겠다고 약속했다.

미세먼지는 이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비염, 천식 등 알레르기성 질환, 기관지염,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또 수면장애까지 일으킨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수명까지 좌지우지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와 아주대 환경공학과가 공동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 및 분진이 수도권 지역 거주자의 사망에 미치는 영향도를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와 황사 등으로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한 해 30세 이상 성인 1만 5,000여 명이 기대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이 현 상태를 유지하면 2024년에는 조기 사망자가 2만 5,000여 명으로 70%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불길한 전망도 나온다.

영화 ‘인터스텔라’가 생각한다. 지구의 온난화와 이상기후로 황사가 불어 닥쳐 인간이 살 수 있는 다른 행성을 찾아 나서야 할 때가 머지않은 것일까. 중국발 미세먼지는 한국과 일본을 지나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 서부까지도 날아간다고 하니 그 심각성은 이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적과의 동침’에서 살아남는 법

미세먼지가 건강에 해롭다지만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적과의 동침’을 해야 하는 불편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은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고 예방하는 길이다. 서울대학교 국민건강지식센터에 따르면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계 질환자, 아이·노인·임산부는 미세먼지 혹은 황

사 농도가 높을 때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경우 신체 노출 부위를 최소화하도록 긴 소매 옷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출 후에는 샤워, 세수, 양치질을 해 몸에 남아 있는 미세먼지와 황사 물질을 제거하고 눈, 목, 코안의 점막을 세정하는데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창문을 열어놓으면 외부에서 미세먼지 혹은 황사 물질이 실내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창문을 닫아야 한다. 외부에서 유입된 미세먼지 혹은 황사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수분 섭취량이 부족하면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져서 미세먼지 혹은 황사 물질의 체내 침투가 더욱 쉬워지기 때문에 하루 8잔(1.5ℓ) 이상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규칙적인 식사와 엽산, 비타민B·C 등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도 미세먼지가 몸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TIP

미세먼지, 생활 속 대처법

- ✔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되도록 외출 삼가기
- ✔ 창문을 닫아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을 차단하기
- ✔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와 보호 안경 착용하기
- ✔ 외출 후에는 옷 털기 및 손발 깨끗이 씻기
- ✔ 하루에 물 8잔 이상 마시기
- ✔ 규칙적인 식사와 엽산, 비타민B·C 등이 많은 과일과 채소 섭취하기



미세먼지란?

미세먼지는 탄소, 유기탄화수소, 질산염, 황산염, 유해금속 등 여러 가지 복합 성분을 가진 대기 중 부유 물질이다. 지름이 10 μ m 보다 작고 2.5 μ m보다 큰 입자를 말하며, 주로 도로변이나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한다. 지름이 2.5 μ m 이하인 입자는 초미세먼지라고 하며 담배 연기를 내뿜을 때나 연료가 연소될 때 생성된다. 미세먼지는 크기가 매우 작아서 코와 기도를 지나 기도 깊숙한 곳의 폐포에까지 도달함으로써 폐와 혈액 속으로 유입되어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등을 일으킨다.

최근 <윤식당> 같은 프로그램을 성공시킨 나영석 PD표 예능의 특징은 복잡한 현실의 삶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을 비워두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빈 곳에서 비로소 삶의 새로움을 찾아내는 것. 최근 '미니멀 라이프'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바로 이것이다.

글_정덕현(대중문화 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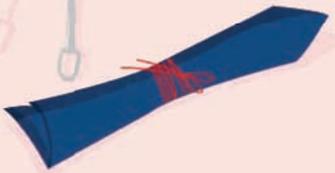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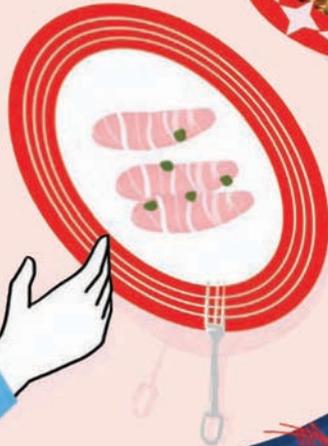
채우기보다는 비움으로, 미니멀 라이프

<윤식당> 판타지로 보는 미니멀 라이프

<윤식당>이 건드린 현대인들의 판타지

저런 곳에서 모든 걸 잠시 접어두고 새롭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최근 나영석 사단이 새롭게 만들어 화제가 된 <윤식당>을 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떠올릴 수밖에 없는 로망이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배를 타고 가야 비로소 당도하는 외딴섬. 그 섬에서 한식당을 열고 손님을 맞는 콘셉트의 이 프로그램은 사실 우리가 도시에서 느끼는 삶과는 모든 것이 정반대에 놓여 있다. 새로운 가게라고는 해도 여행지라는 공간이 주는 막연한 설렘이 있고, 그 가게를 연 사장님(윤여정)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자체가 없다. 다만 가게를 찾는 외국인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걸 맛나게 먹는 모습을 보고픈 마음이 더 클 뿐이다.

게다가 이 가게에는 보통의 회사에 있기 마련인 강압적인 위계의 분위기도 없다. 사장님인 윤여정은 보조인 정유미를 마치 딸처럼 대하며 많은 부분을 의지한다. 정유미 역시 엄마를 대하듯 윤여정을 살뜰하게 챙기고, 아르바이트생 역할로 들어온 최고령자 친구는 손님이 오지 않아도 절대 앉아서 쉬는 법이 없다. 게다가 상무인 이서진은





윗사람 아랫사람 챙기면서도 가게 운영의 묘를 발휘한다. 언제고 함께 일하고 싶을 만큼 좋은 사람들이 주는 로망만큼 큰 게 있을까. 무엇보다 이 섬은 속도에 대한 강박 자체가 없다. 자동차는 없고 대신 마차와 자전거가 유일한 이동수단이라는 점은 그 안의 풍경들에 고스란히 영향을 준다. 이런 곳이라면 그곳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현실과는 완전히 다를 것만 같다. <윤식당>이 건드린 현대인들의 판타지다.

우리가 나영석 PD표 예능에 빠지는 까닭

그런데 알고 보면 <윤식당>이 주는 이런 판타지는 다름 아닌 이른바 나영석 PD표 예능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다. 전작인 <삼시세끼>를 떠올려보라. 그 프로그램 역시 도시를 떠나 시골이든 섬이든 어딘가에 폭 파묻혀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과는 다른 걸 영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곤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세 끼 챙겨 먹는 일이 전부였다. 그래서 너무 단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웬걸? 그렇게 삶을 단순하게 바꿔놓자 우리는 그간 복잡한 삶 속에서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고, 듣지 못하던 것들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저 아무렇지도 않던 빗소리가 새삼스럽게 들리기 시작했고, 도시의 네온사인 불빛에 보이지 않던 밤하늘의 별들이 암흑천지 시골의 하늘에 펼쳐졌다. 굉장한 요리는 아니지만 스스로 키워낸 채소들을 잘 씻어 된장에 찍어 먹기만 해도 맛이 났다. 그건 버림으로써 찾게 된 삶의 맛이였다.

채우기보다는 비우는 것. 덜 가짐으로써 오히려 더 극명해지는 진짜 삶의 모습. 나영석 PD표 예능이 늘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이른바 '미니멀 라이프' 트렌드라고 부른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 이 트렌드는 그러나 '물건을 줄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게 가짐으로써 삶의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는 데 중점을 둔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보면 <윤식당>이 준 판타지 역시 이 미니멀 라이프 트렌드와 무관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미니멀 라이프,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하는 까닭

물론 미니멀 라이프가 최근 들어 트렌드로 확산하는 것은 현대인들의 어떤 깨달음 때문만은 아니다. 거기에는 보다 현실적인 이유들도 존재한다. 즉 최근 들어 급증한 1인 가구는 많은 물건을 굳이 채워 넣을 필요가 없는 삶을 추구하게 됐고, 장기 불황은 아끼는 차원에서도 소비를 줄이는 삶을 살게 했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이유를 차치하고라도 우리네 삶은 과거 몇 년 전과 비교해도 훨씬 복잡해졌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끊임없이 울려대는 스마트폰을 떠올려봐도 그 복잡한 관계의 피곤을 실감할 수 있지 않은가. 결국 이렇게 한층 복잡해진 삶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저 미니멀 라이프가 얘기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졌다. 버릴 건 버리고 집중할 것에 집중하는 삶.

<아무것도 못 버리는 사람>이라는 책의 저자 캐런 킹스턴은 잠동사니가 쌓여가는 삶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지목한 바 있다. 버림으로써 행복해지는 길, 그리고 비움으로써 비로소 보이는 삶. 그것이 미니멀 라이프가 우리에게 전하는 삶의 역설이다. ☐

TIP

미니멀 라이프의 유래

'미니멀 라이프'라는 개념은 2010년 웹사이트 '미니멀리스트 닷컴(TheMinimalists.com)'을 운영한 조슈아 필즈 밀번(Joshua Fields Millburn)과 라이언 니커디머스(Ryan Nicodemus)에게서 비롯됐다. 이들은 모두 좋은 직장에 다니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호화로운 집에 살지만, 일주일에 70~80시간씩 일했다고 한다. 유일한 낙은 물건을 사는 것. 이러한 소비를 통해 삶의 허기를 채워오던 이들은 하지만 그런 삶이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했다고 한다.

COURT NEWS

「울산법원 통역·번역서비스 자원봉사단 창단식」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2017. 4. 27.(목) 11:00, 3층 대강당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국·과장들과 관내 5개 구·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통역·번역서비스 자원봉사단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 최초로 결혼이주여성으로 구성된 「울산법원 통역·번역서비스 자원봉사단 창단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울산법원 통역·번역서비스 자원봉사단」은 외국인 및 지역 이민자의 증가 등으로 인해 법원을 방문하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민원인들에게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원 이용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결혼이주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창단하였습니다. 통역·번역서비스 자원봉사단은 관내 5개 구·군별 다문

화정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은 자원봉사 희망 이주 여성들로 구성되었으며, 매일 오전 2명·오후 2명의 봉사단원이 외국인 우선 지원 창구 및 가사 관련 민원 창구에 상주하며 법원을 방문하는 외국인 등에게 상시적으로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날 창단식에 앞서 울산지방법원과 관내 5개 구·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울산법원 통역·번역서비스 자원봉사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구가정법원 청소년음악회 개최



대구가정법원(법원장 박민수)은 2017. 5. 15.(월) 18:30 대구학생문화센터 소극장에서 법원장 등 법원가족과 6호 위탁기관 및 신병인수 위탁보호기관 보호소년 및 기관 관계자, 위탁보호위원 및 위탁처분 보호소년, 가사조정위원, 전문상담위원 및 협의이혼 전 상담위원, 인근 아파트 주민 등 150명을 초청하여 청소년과 함께하는 대구가정법원 청소년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청소년음악회는 김옥희 판사와 강병우 실무관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1부에서는 달성중학교 난타동아리 달성 세로토니드 락클럽의 난타 공연과 인디밴드 라이브-오의 밴드 공연 그리고 디오 챔버 오케스트라의 클래식 현악 4중주, 금관 5중주 공연으로 진행되

었습니다. 이어 2부에서는 성 바오로 청소년의 집 학생들의 합창 및 밴드 공연과 인디밴드 카노의 공연, 마지막으로 열린 앙상블의 공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구가정법원은 앞으로도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협력기관 관계자 및 법원가족 등이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청소년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 및 기관과 법원 가족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어린이 법관 위촉식 개최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노태익)은 2017. 5. 17.(수) 15:00 가인초등학교(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호인 '가인'을 학교명으로 정하여 2004년 개교) 어린이 17명을 어린이법관으로 위촉하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어린이법관 위촉은 가정의 말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법원의 역할을 이해하고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법원을 찾은 어린이들은 법정 방청에 이어서 대법정에서 법관, 검사, 변호인 등의 역할로 나누어 모의재판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의재판에서 어린이들은 현명한 판결을 위해 고민하는 판사로서, 어려움에 처한 피고인을 돕는 변호인으로서, 사회 정의를 구현

하는 검사로서 역할을 경험하며, 참석한 모든 어린이들이 미래 자신들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이어진 어린이 법관 위촉식에서 법원장은 모든 어린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어린이법관 대표에게 직접 법복을 입혀주었습니다. 법원장은 어린이법관으로 위촉된 어린이들을 축하하며,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범적인 어린이로 생활하고 미래에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법조인으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하면서 참석한 어린이 한 명 한 명에게 법원에서 마련한 기념품을 전달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과 중소기업청 간 업무협약 체결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과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문환)은 2017. 5. 2.(화) 15:00 대구지방법원 4층 중회의실에서 경영위기의 중소기업이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대구지방법원의 『법인회생절차』와 중소기업청의 『회생컨설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경영위기의 중소기업에게 '회생컨설팅트'를 선임해주는 '회생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미 법인회생을 신청한 경우는 '회생컨설팅' 지원이 불가능하고, '회생컨설팅'을 받더라도 법인회생절차의 '조사위원 보수'는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미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도 중소기업청의 『회생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회생컨설팅』을 받는 기업이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조사위원 선임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기업의 '조사위원 보수' 부담을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법인회생절차』와 『회생컨설팅』이 효율적으로 연계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원사람들
원고모집

법원 가족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원고가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더불어 '스타일링 Q'와 '만나고 싶었습니다'에 참여해 주신 분께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원고 분량 : PC로 작성할 경우 A4용지 3장 내외
- 원고 마감 : 수시
- 보내실 곳 : E-mail_법원사람들@scourt.go.kr
- 문의전화 : 02-3480-1456 공보관실
- 법원사람들 홈페이지 : <http://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lList.work?gubun=7>

사법부 홍보를 위해 대법원 페이스북, 트위터와 블로그 "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스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원 가족 여러분의 많은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 페이스북 주소 : <http://www.facebook.com/scourtkorea>
- 트위터 주소 : <http://www.twitter.com/scourtkorea>
- 블로그 주소 : http://blog.naver.com/law_zzang,
http://blog.daum.net/law_zzang
- 유튜브 주소 : <http://www.youtube.com/scourtkorea>
- 인스타그램 : <http://www.instagram.com/sourthkorea/>



지난호 퀴즈
당.첨.자.

- 김정진 실무관 서울남부지법
- 임은희 실무관 정읍지원
- 한송이 실무관 인천가정법원
- 손중호 실무관 대구지법
- 박용덕 동기관 화성등기소



지난호 퀴즈
정.답.



다른
그림찾기

법원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법원사람들」을 만드는 데 반영하겠습니다. 2017년 「법원사람들」에 관한 소감을 '다른그림찾기' 정답과 함께 보내주세요.

서로 다른 부분을 다섯 군데 찾아주세요.

다른그림찾기 정답은 서로 다른 부분을 표시한 사진을 스캔한 후 e-mail에 첨부하여 해당 월 20일까지 보내주세요.

- e-mail : 법원사람들@scourt.go.kr
- 소감과 다른그림찾기 정답을 모두 보내주신 분들에게 한하여 매월 추첨을 통해 대법원 기념품을 드립니다. 정답 및 당첨자는 다음호에 게재합니다.



청주지방법원 사무국 민사신청과 이용환 실무관(現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민형과)



친절한 경청과 답변에 위로를 받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사업주의 부당해고와 폐업으로 인한 임금 관련 소송들이 모두 종국되고도
사업주가 전혀 이행하지 않아, 결정문과 집행문,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채권추심과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위 채권추심명령 결정문을 받고 청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집행계에 문의사항이 있어
방문하게 되었으며, 이때 뵈었던 분이 집행계 이용환님입니다.
2015년부터 사업주와 소송들을 진행하면서 많이 힘들고 지쳐 있었지만
그래도 '이젠 모두 종국되어 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에 기운을 내고 웃으며 지내왔는데,
사업주의 불이행으로 또 한 번 큰 좌절감을 느끼며 방문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용환님께서서는 문의사항들을 확인하고 저의 말을 잘 경청해 주셨으며, 문의사항에 대한
자세하고도 이해하기 쉬운 답변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네요'라는 마음을 위로하는 말 등 이용환님의 민원인들을 대하는 모습과 말들이
너무나 고맙웠기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들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2017. 2. 류 ○○





정신병원, 요양소 등 수용시설에
억울하게 갇혀 있다면 전화하세요

구출구출 인신보호제도


16619797
인신보호제도안내전화 구출 구출

